

# 수출용 꽃 시듦 문제, 새 물통으로

### 농진청, 신개념 '수분 공급 물통' 개발 높혀 포장해도 절단면에 물 공급 잘 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수출용 꽃을 유통할 때 쉽게 시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물통을 개선한 새로운 개념의 '수분 공급 물통(튜브)'을 개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뿌리가 잘린 꽃(절화)은 유통되는 동안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급속히 시들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절화 절단면을 '물대롱'으로 불리는 일반 물통에 꽂아 유통해 왔다. 그러나 이 물대롱은 절화를 높혀 포장하면 물이 남아 있더라도 꽃의 절단면이 물에 닿지 않고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꽃이 쉽게 시드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상자 안에서 시드는 꽃이 17개만 발생해도 수출 과정에서 상자 전체의 등급이 하품으로 매겨져 현장의 어려움이 컸다.

예식이나 행사용으로 인기가 많아 일본으로 꾸준히 수출되는 '수국'의 경우 물이 공급되지 않은 채로 공기 중에 2~3시간 정도 노출되면 시들어 상품성을 잃게 된다. 수국 절단면을 물에 다시 꽂으면 회복되기는 하지만 물 공급이 되지 않은 시간만큼 수명이 짧아진다. 실험 결과 물 공급을 2~4시간 중단한 수국은 물 공급을 중단하

지 않은 대조구보다 꽃 수명이 1~2일 짧아졌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기존 수분 공급 물통의 단점을 개선한 새로운 개념의 절화용 물통을 만들었다.

새 물통은 물을 윗부분 아랫부분 2개 층으로 분리하는 고무 막을 안쪽에 넣어 꽃이 물을 흡수할 때마다 그 힘으로 위층의 물이 아랫부분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덕분에 꽃을 옆으로 눕혀서 포장하더라도 절단면에 계속 물을 공급함으로써 꽃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개발품의 특허출원과 국제특허출원(PCI출원)을 완료하고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평가회를 마쳤다. 농가 의견을 반영한 뒤 업체 기술 이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절화 수국 전문 수출단지 그린화훼 영농조합법인 김양석 대표는 "정성껏 키운 수국을 일본으로 수출할 때 물대롱 문제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생겨 무척 반갑고 현장에서 빨리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홍유표 과장은 "이번 기술은 수국을 수출할 때 수분 흡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했지만 최근 택배 유통 등 절화 유통 환경이 다양해지면 다른 절화류의 신선도 유지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화훼류의 수출 유통 현장에 빠르게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a7센터에서 2022년 제1차 빅데이터 CEO 혁신자문위원회 를 열고 농수산식품산업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산학협력과정 운영 통한 지역인재 양성

### 국민연금, 오픈캠퍼스 6기 운영 전북대 등 도내 5개 대학 · 제주대 학생 등 수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두대행 박정배)은 전북대학교 지역대학육성사업단과 함께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 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산학협력과정 '오픈캠퍼스 6기'를 운영했다.

'오픈캠퍼스'는 공단 사업과 관련된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참여 대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공단 인턴 지원 시 서류전형 가점을 주는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하계·동계로 연 2회 운영되며, 6기 학생모집

은 전북대학교에서 주관해 전북소재 대학교, 제주대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오픈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오픈캠퍼스'에서는 전북지역 5개 대학교(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우석대, 전주대)와 제주대학교 학생 등 총 80명이 수강했다.

이번 6기 교육과정에서는 농생명산업 및 금융 특강 등 취업 관련 프로그램

을 강화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했으며, 참여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했다.

김성호일 경영지원실장은 "오픈캠퍼스를 통해 학생들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고 공단은 인재상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 내 인재들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인생 2막, 새로운 시작'

### 전북중장년기술창업센터 퇴직자 대상 스타트업 부트캠프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운영중인 전라북도중장년기술창업센터(이하 중장년 센터)가 지난달 28과 29일 양일간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군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노시발전재단 전북센터와 함께 중장년 퇴직(예정)자를 위한 스타트업 부트캠프를 운영했다.

스타트업 부트캠프는 퇴직 예정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창업에 대한 기본 이해, 아이템 기획 및 비즈니스 모델 등 창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과 사업화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8시간 동안 2022 창업트렌드의 이해, 비즈니스모델 실무, 사업계획서 구성요소 이해, 성공창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과정으로 진행했으며 17명의 (예비)대표가 성공 창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17명의 교육 수료생에게는 중장년 센터 입주 시 우대사항을 적용하고, 창업전문가 자문 지원 사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경진원 관계자는 "중장년의 인생 2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운영중인 전라북도중장년기술창업센터(이하 중장년 센터)가 지난달 28과 29일 양일간 익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군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노시발전재단 전북센터와 함께 중장년 퇴직(예정)자를 위한 스타트업 부트캠프를 운영했다.

막을 위해 퇴직 후 공백을 최소화 하고 평생 현역활동을 응원하겠다"며 "중장년 센터는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공간지원·시제품 제작지원 등 다방면으로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농협, 부안서

### 조합운영협의회 진행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1일 전라북도조합운영협의회(위원장 김원철, 부안농협조합장)를 농협생명 변산수련원에서 진행했다.

정재호 본부장을 비롯해 전북지역 각 시군을 대표하는 16명의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북 농업과 농협에 대한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전북 농업·농촌 발전에 공동 노력키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조곡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축협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 전북농협이 추진하는 '전북농협 쌀 100만포 소비촉진'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농업·농촌·농협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운천 국회의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수여했다. 감사패는 농협중앙회장을 대신해 중앙회 김원철 이사가 전수했다. 감사패 수여 후 정운천 의원은 전북 농업·농촌·농협의 다양한 현안과 발전 방향 모색에 대한 특별강연을 했다.

또한 내년 3월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버라이어! 상회비아웃! 부정보도아웃! 부정보도아웃!' 캠페인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구현과 공명선거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도 진행했다.

김원철 위원장은 "우리 전북 지역 농가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소비촉진 운동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신협, 대학생 인턴십 발대식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지난달 30일 대전 서구 소재 신협 중앙회 2층 대강당에서 2022년 대학생 인턴십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한 전국 약 60명의 대학생과 강령민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본부장 등 신협 임직원들이 참여, 8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의 진행계획과 안내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신협은 대학생들에게 금융협동조합의 다양한 직무 경험 및 취업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험형 대학생 인턴십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

이번 신협 대학생 인턴십 대표 박찬희 학생(대전유성신협)은 "인턴십 프로그램이 알차게 구성돼 있어 금융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넓힐 기회가 될 듯해 기대가 크고 80명의 인턴을 대표하는 만큼 인턴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 신협중앙회 경영전략팀장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글로벌 금융협동조합인 신협에서의 경험과 취업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많은 인재가 지원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강령민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 및 청년들이 신협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단기예금 선호 고객 위해

### 전은, 이달 'JB 3.6.9 정기예금 특판'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7월 한 달간 JB 3.6.9 정기예금 특판을 실시한다.

정기예금 가입 금액은 최고 한도 없이 5백만 원 이상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 중 기간 선택 가능하며 금리는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 포함해 3개월 최고 연 2.60%, 6개월 최고 연 2.90%, 9개월 최고 연 3.00%이다. 판매한도는 2,000억 원으로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우대 금리의 경우 최고 0.6%로 예금 계약 기간 내에 정기적금 또는 적립식 펀드 신규 가입 고객, 신용·체크카드 사용 고객, 전담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 중 한 건 이상 충족 시 만기 해지 할 때 우대금리 0.4% 제공한다. 또한 가입 시 마케팅 등의 고객에게 0.2%, 법인고객에게 0.2%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금리상승 기대로 단기예금을 선호하는 고객 맞춤형으로 단기 예금 특판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함께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소상공 온라인 시장 진출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 제공

### 전북중기청 '가치샵시다 플랫폼' 새롭게 출발 영상 콘텐츠 게시 · 인프라 예약기능 등 제공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가치샵시다 플랫폼'이 기존 소상공인의 상품 판매 슬롯건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구현과 공명선거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도 진행했다.

김원철 위원장은 "우리 전북 지역 농가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소비촉진 운동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난 4월 구축했다.

아울러 온라인 진출 초기 소상공인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온라인 진출 배움터)을 제공하고, 지원사업(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안내) 및 온라인 진출 우수 사례 등을 소개(디지털 전환 솔루션)한다.

그 밖에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매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무독경계판' 및 '리브러머스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등도 운영한다.(가치샵시다 마켓)

전북중기청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가치샵시다 플랫폼'에 대한 SNS 확산 등을 위한 신규회원 가입 및 해시태그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가격제한 등 특별 라이브커머스 기획전이 포함된 '가치소비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편 및 기능 오픈 이벤트 등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가치샵시다 플랫폼(https://valueb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농관원 익산사무소,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합동 캠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소장 황용규, 이하 익산 농관원)은 원산지표시 MOU 체결한 익산 3개 전통시장(익산 서동, 중앙, 북부시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상인과 만남의 날' 행사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익산 농관원과 익산 전통시장 상인회는 지난해에도 '상인과 만남의 날'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해 시장상인 스스로 원산지 표시 관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고 있다. 또한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올해에도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원산지표시 관리·홍보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익산 농관원은 MOU전통시장 지원과 협력사업 일환으로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판이 필요한 곳에 즉시 배부하고



있으며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검증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관리를 하고 있어, 농관원 본원 주관평가에서 서동시장과 북부시장이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으며, 전북지원 주관으로는 중앙시장, 동부시장이 수상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